

# 경남 지방의 별서 특징에 관한 연구

오태호\* · 안계복\*\*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통조경의 대표적인 정원 중 하나인 별서는 자연과 동화를 위해, 인공적인 기교를 부리거나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자연 지형을 이용한 공간구성이나, 입지단계에서부터 주변 자연을 정원으로 끌어들이며 경관이 수려한 자연 속에 정자 등의 기본적인 최소 시설을 설치하였다(양병이 등, 2003). 하지만 이러한 별서의 특징은 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포괄적인 면이 있다. 별서에 관한 연구는 별서의 개념 및 의미에 관한 연구와 입지특성, 조영배경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지역적 특징을 밝히고자한 선행연구는 이제까지 없었으며, 누정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밝힌바 있으나 이는 모든 누정이 별서가 아니듯 별서의 특징이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지방 별서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전통정원의 특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중·일 전통정원의 특성비교 및 현대 전통공간의 재창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II. 연구방법

### 1. 대상지 설정

본 연구는 문화재청에서 발주한 2010년 전국 별서 명승자원 지정조사의 일환으로 경남지방의 별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지는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경남의 각 시·군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정을 거쳐 수합된 61개소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에 대한 1차 조사는 2010년 4월 16일부터 2010년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2010년 8월 15일, 3차 조사는 2010년 8월 23일에 실시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별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표를 작성

하여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는 별서유형, 입지유형, 조경요소, 경관구조, 경관처리기법, 경관조망으로 나누어진 세부 분류항목에 따라 조사되었다. 각 조사된 항목별로 단순통계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대상지 성격 및 조영배경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지의 문헌조사 결과, 별서 대상지의 성격 및 조영배경은 은거형, 풍류형, 추모형, 서원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거형 별서는 조영자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은둔하여 산수를 즐기고 강학을 위해 조영하거나 후대에서 이를 기리기 위해 조영한 것이다. 풍류형 별서는 민경현(1991: 249)의 별서유형 분류에서 휴양정보다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별서 조영에 있어 조영자가 단순히 휴양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자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자연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 위함으로 다시 말해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듯이’ 자연의 흐름(변화)에 따라서 풍류를 어떻게 즐겼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 개념(안계복, 2005: 156)으로 경승지(景勝地)에 조영자가 직접 조영하거나 후대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영한 것이다. 추모형은 단순히 선조를 추모하거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조영된 정자로 별서를 보기 힘든 것이며, 서원형은 역시 강학(講學)을 목적으로 조영된 정자다. 기타의 경우 조영자가 관직에 있을 때 건립하였거나 그 밖의 조영 배경을 갖는 것들이다. 조사대상지 가운데 서원으로 쓰인 정자나 선조들을 추모하는 정자 등은 별서 성격이 미약하므로 연구대상지에서 제외하였고 최종 51개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 2. 별서유형 분석

별서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51개의 별서 가운데 78.4%가 임수형이며, 내륙형은 11.8%, 계곡형은 9.8%로 나타났다. 계곡형의 경우 전체별서의 5개소만이 포함되었으나 한국의 대표적인 별서라고 할 수 있는 소쇄원, 소한정, 보길도 윤선도 유적 등이 중앙에 계곡을 두고 계곡 양쪽을 모두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곡형 별서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특히 별서의 유형분석 결과 입수형과 계곡형의 합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고 있어 별서유형에서 물을 활용하는 별서유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입지유형분석

입지유형을 분석한 결과 강변이 27.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구상 22.1%, 단안 19.8%, 산계 10.5% 유형 순의 입지유형이 나타났다. 입지유형을 중첩한 결과 51개의 별서 가운데 47.1%의 정자가 단일입지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입지유형이 52.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단일입지유형을 갖는 별서보다 복합입지유형을 갖는 별서가 근소하게 많지만 크게 본다면 반반정도의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복합적 입지유형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강변과 연계된 단안, 구상, 삼강이 전체의 55.6%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형태로 곡강변을 포함할 경우 전체의 70.4%로 나타났다. 즉 '강변 혹은 곡강변 절벽이 있는 언덕 위'가 경남지방 별서의 가장 대표적인 복합적 입지유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4. 조경요소

#### 1) 수경요소

연구대상지 가운데 88.2%가 수경요소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별서의 경관구성에서 수경요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자연적 수경요소가 전체의 88.7%로 인위적으로 연출된 경우보다 연출사례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조영자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경요소의 복합적 연출 구조를 살펴보면 단일구조 연출이 전체의 64.4%였으며, 복합적 연출된 경우가 35.6%로 나타났다. 복합적으로 연출된 경우 계류와 연계된 폭포, 소, 급류의 구조가 전체의 75%로 나타나 수경요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합적구조라고 할 수 있다.

표 1. 수경요소 연출방법 분석표

수경요소 연출방법	개소	백분율(%)
자연적 요소	하천	34.7
	계류	20.8
	소	15.3
	급류	9.7
	폭포	8.3
인위적 요소	연못	9.7
	댐	1.4
계	72	100

#### 2) 암석요소

암석요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지 가운데 74.5%에서 암석요소 연출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암반이 37.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바위가 29.5%로 연출되었으며, 대(臺)가 28.2%로 연출되었다. 또한 인위적 연출은 하환경 무기연당의 석가산이 유일하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별서를 조영함에 있어 인위적으로 석가산을 쌓거나 돌을 배치하는 수법 보다는 자연의 암반과 바위, 대(臺)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경관분석

#### 1) 경관구조

안계복(1990: 64-65)의 연구를 참고하여 대상지의 경관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자를 기준으로 배경에는 산이 41.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숲이 21.1%로 나타났다. 정자의 입지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근경은 강이 3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각각 14.1%를 차지하는 계곡, 바위가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중경의 경우 중첩된 산이 52.9%를 차지하며, 산 아래에 형성된 들(11.5%)과 마을(16.1%)도 비교적 자주 나타났다. 원경은 정자에서 조망점에서의 거리가 6km 이상인 시각한계지점으로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조망시 청산(靑山)으로 조망된다. 따라서 경남지방 별서의 경관구조적 특징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정자를 기준으로 숲과 산이 배경을 이루고 정자는 암반 위에 조성되어 그 앞으로 강 또는 계곡이 흐르며, 트인 경관인 중경에는 들과 마을, 산이 보이며, 조망점에서 6km이상의 시각한계점에 청산(靑山)이 자리한 경관구조를 이루고 있다.

#### 2) 경관처리기법

경관처리기법을 분석한 결과 51개 대상지 가운데 84.3%가 경관처리기법이 나타났다. 경관처리기법은 원경(遠景)이 38.2%로 나타났고 다경(多景)이 그와 비슷한 31.6%로 나타났다. 환경(環景)과 취경(聚景)은 각각 14.5%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남지방 별서에서 원경(遠景)과 다경(多景) 경관처리기법이 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관처리기법의 복합성을 분석한 결과 단일연출이 48.8%로 나타났으며, 복합적으로 연출된 경우가 51.2%로 나타났다. 특히 문암정의 경우 원경, 취경, 환경, 다경 네가지 경관처리기법이 나타나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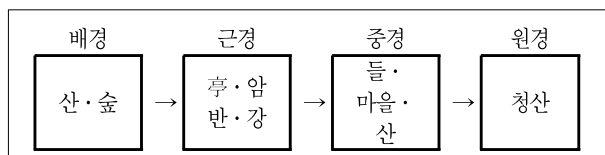


그림 1. 경남지방 별서의 경관구조적 특징

### 3) 경관조망

경관조망축을 분석한 결과 88.2%의 별서에서 경관조망이 가능하였고 나머지 11.8%의 별서에서는 입지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의 이유로 경관조망축을 형성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경관조망축이 형성된 45개소의 별서 가운데 경관조망축이 1개인 경우가 35.6%이고, 2개인 경우가 44.4%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관조망축이 1개 또는 2개인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별서의 경관조망 거리를 분석한 결과 경남지방 별서의 평균 경관조망거리는 6.7km로 나타났다.

## IV. 결론

본 연구는 경남지방의 별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51개소의 별서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별서유형, 입지유형, 조경요소, 경관구조, 경관처리기법, 경관조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별서의 유형분석결과 입수형과 계곡형의 합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고 있어 별서유형에서 물을 활용하는 별서유형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별서의 입지유형을 분석한 결과 강변에 입지한 경우가 30.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입지유형의 중첩성을 분석한 결과 47.1%의 정자가 단일입지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입지유형이 52.9%로 나타나 크게 본다면 절반 정도의 비율이다. 또한 경남지방 별서의 입지는 “강변 혹은 곡강변 절벽이 있는 언덕 위”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3. 수경요소 유무를 살펴보면 총 51개의 별서 가운데 45개소인 88.2%가 수경요소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별서의 경관구성에서 수경요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 수경요소의 연출방법을 분석한 결과 자연적 연출방법이 전체의 88.7%로 나타났는데,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조영자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났다. 그리고 복합적 수경요소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계류와 연계된 폭포, 소, 급류의 구조가 전체의 75%

로 나타나 수경요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합적구조라고 할 수 있다.

4. 암석요소의 경우 74.5%의 별서에서 암석요소가 연출되었다. 또한 인위적 연출은 하환경 무기연당의 석가산이 유일하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별서를 조영함에 있어 인위적으로 석가산을 쌓거나 돌을 배치하는 수법 보다는 자연의 암반과 바위, 대(臺)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경남지방 별서의 대표적인 경관구조는 정자를 기준으로 숲과 산이 배경을 이루고 정자는 암반위에 조성되어 그 앞으로 강 또는 계곡이 흐른다. 또한 트인 경관 중경에는 들과 마을, 산이 보이며, 별서로부터 6km 이상의 시각한 계점에 청산(靑山)이 자리한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 나타났다.
6. 경남지방의 별서는 주로 원경(遠景)과 다경(多景)을 경관처리기법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암정의 경우 원경, 취경, 환경, 다경 네 가지의 경관처리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경남지방 별서의 경관조망축은 조망축이 1~2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균조망거리는 6.7km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남지방의 별서만을 연구대상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진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경남지방 이외의 타 지방에 관한 연구도 계속한다면 전국의 별서의 지역적 특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용문헌

1. 민경현(1991) 韓國庭苑文化: 始源과 變遷論. 閔庚珪.
2. 소현수 등(2006) 주거단지 외부공간에서의 전통 재현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2): 86-100.
3. 안계복(1990) 樓閣 및 亭子樣式을 통한 韓國傳統庭園의 特性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안계복(2005) 풍류의 정원, 루, 정, 대(樓, 亭, 臺).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150-157.
5. 양병이 등(2003)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길도원림, 소쇄원, 남간정사,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21(1): 9-20.
6. 홍광표 등(2001) 한국의 전통수경관. 테림문화사.